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하는
기획전시

홍일화
초대전

제주
생명의 숲,

곶자왈의 숨

2026.7.6—7.31

10:00-17:00

라이나타워 1층 로비



제주국립식물원
THE BOTANICAL GARDEN OF JEJU

주최 라이나손보
후원 라이나손보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하는 기획전시

먼저, 화산섬 제주의 고유한 환경자산인 꽃자왈의 서울 도심나들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처브그룹 라이나손해보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2027년 20년 역사를 앞둔 가운데, 2025년부터 꽃자왈의 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작품세계로 주목을 받고 있는 홍일화 작가의 이번 기획전시는 자연이 인간에게 건네는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쪼록 바쁜 일상 속 꽃자왈의 생동하는 숨결을 통해 아름다운 공생의 의미를 체감하며 위로받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 김범훈

도심 한 가운데에서 제주의 특별한 자연이 품은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일화 작가가 담아낸 꽃자왈의 풍경은 그 곳에 깃든 생명력과 시간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라이나손해보험은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과 함께 꽃자왈의 가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가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고,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이나손해보험 대표
모재경 사장

꽃자왈, 아름다운 공생의 숲

내 삶과 작업의 가장 큰 스승은 꽃자왈이다. 내가 그곳에 온전히 매료된 이유는 오직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엷힘과 공존의 선’ 때문이다. 험준한 돌덩이 위에서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 바위를 억척스럽게 감싸안은 판근, 서로 다른 종의 나무가 경계를 허물고 힘을 합한 연리목, 그리고 숲의 숨통이 되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숨골까지. 이 울창한 혼돈 속에는 옹고 그림의 갯대도,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분열의 전쟁도 없다. 그곳에는 오로지 생존을 향한 어울림, 즉 아름다운 공생만이 숨 쉬고 있다.

본래 자연에는 구분선이 없다. 자연은 그저 ‘스스로 그려할’ 뿐이다. 인간이 저마다의 내적 표상에 따라 선을 긋고 벽을 세웠을 뿐이며, 그 표상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따름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온 세상의 촘촘한 생물그물망을 끊고, 멋대로 연결하고, 마모시키는 지금, 우리의 윤리는 철저히 ‘속함의 윤리’여야만 한다. 자연의 위대한 연결자인 나무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관계 속에 깃드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근원과 재료, 그리고 생명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홀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닌, 서로 엷힌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나무는 이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채, 인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살아온 존재다. 인간은 그 거룩한 터전 위에서 겨우 삶을 빌려 얻었을 뿐이다. 하지만 인간은 숲이 제 것인 양 파헤쳤다. 중세 이후 벌목이 본격화되었고,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숲은 자취를 감추어

갔다. 더욱 서글픈 문제는 파헤쳐진 숲을 살리겠다며 인간이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엉뚱한 땅에 대규모 조림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인위적인 나무를 심을 때,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생명들은 제 수명을 살아내지 못하고 앓아눕는다. 한겨울 눈이 오면 도로 위에 무심히 뿌려대는 염화칼슘처럼, 우리의 편리함은 도로 옆 나무들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다. 인간은 여전히 나무의 시선이 아닌, 인간의 시선으로만 자연을 바라보고 있다.

자연은 때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결국에는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숲을 이루어왔다. 역사 이래 우리에게 아낌없는 기적을 베풀어 준 나무와 숲을 이제는 우리가 살려야 할 때다. 무언가 거창한 일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 나무에게도 그들만의 ‘언어’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 즉 인간의 시선을 거두고 나무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들에게 알맞은 환경을 조절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숲은 저마다의 생태계를 스스로 치유하고 살아갈 능력이 충분하기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나무와 숲은 언제나 인간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작품과 삶을 통째로 흔들어 깨운 꽃자왈의 가르침처럼, 이제 우리는 그 내밀한 마음의 언어, ‘나무의 언어’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하는 기획전시
홍일화 초대전 -

제주 생명의 숲, 꽃자왈의 숨

꽃자왈 0507
oil on canvas,
363.6×227.3cm, 2021

도심으로 스며드는 꽃자왈의 숨결

도시의 중심,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위대한 자연을 마주합니다. 처브그룹 라이나손해보험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기획전시는 돌 틈 사이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과 때 묻지 않은 순수한 평온함을 동시에 품은 제주의 허파, ‘꽃자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홍일화 작가는 오랜 시간 제주의 독특한 생태계이자 생명의 근원인 꽃자왈을 탐색하며, 그곳이 뿜어내는 날것 그대로의 에너지를 화폭에 담아왔습니다. 숨 가쁘게 흘러가는 광화문의 중심에서 마주하는 이 숲은, 단순히 시각적 감상을 넘어 메마른 도심 속 일상에 깊은 호흡을 불어넣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모바일 브로슈어



온라인 전시



캔버스에 내려앉은 꽃자왈의 사계

‘제주 생명의 숲, 꽃자왈의 숨’은 사시사철 푸른 생명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쉽 없이 요동치는 꽃자왈의 사계를 8점의 엄선된 작품을 통해 선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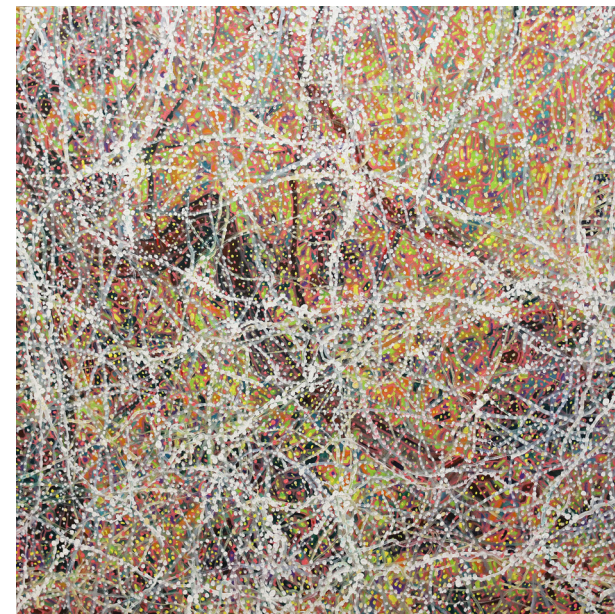
꽃자왈은 돌과 나무, 가시덩굴이 얽히고설키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생명의 연대를 이어가는 곳입니다. 홍일화 작가의 손길로 완성된 8점의 작품은 꽃자왈의 시간 속을 걷는 듯한 특별한 여정을 선사합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봄과 여름의 생동하는 생명력을 담은 웅장한 대작부터, 덩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며 깊은 정취를 자아내는 가을날의 사색, 그리고 새하얀 눈을 품고 소리 없이 겨울을 견뎌내는 신비로운 숲의 풍경에 이르기까지. 캔버스 위에 펼쳐진 꽃자왈의 사계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건넵니다. 작가가 포착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자연이 인간에게 건네는 무언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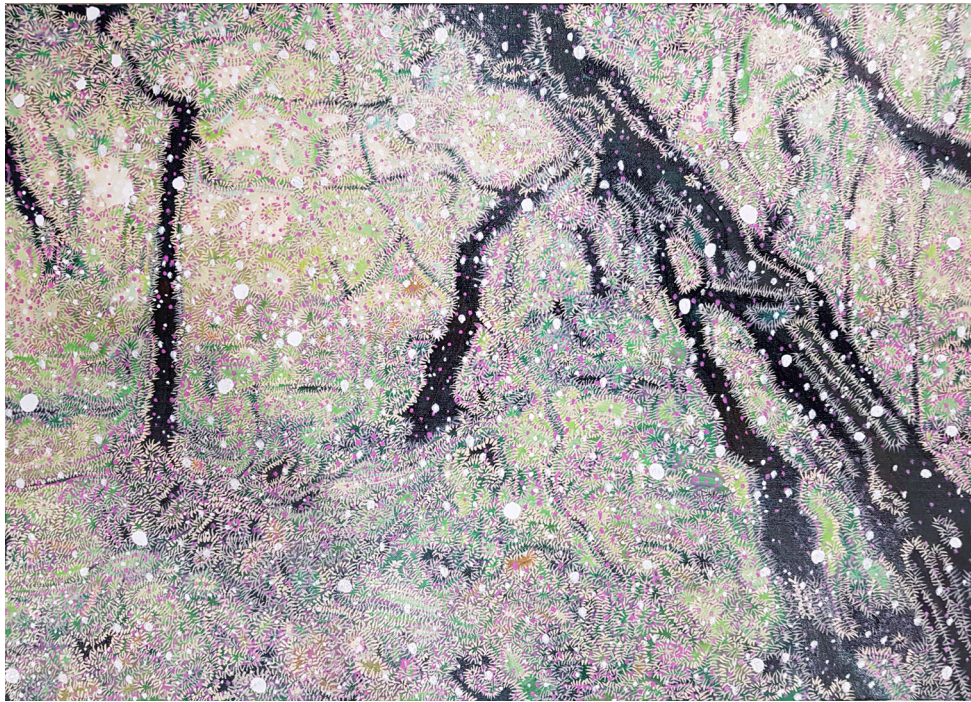
가시박 *S. angulatus* P.E 0423
oil on canvas, 363.6×227.3cm, 2021



Epine.P.E 1211
oil on canvas, 100×100cm, 2021



Epine.P.E 1214
oil on canvas, 100×100cm, 2021



꽃자왈의 눈 0731
oil on canvas, 363.6×227.3cm, 2023

오감으로 걷는 신비로운 숲길

이번 전시는 단순히 벽면의 작품을 바라보는 평면적인 관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시 공간을 아늑하게 채운 초록의 풍경은 마치 제주의 깊은 숲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 좋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자왈의 맑고 싱그러운 향을 고스란히 담아낸 ‘꽃자왈 에센셜 오일’이 공간의 밀도를 더합니다. 준비된 시향지에 향을 담아 가만히 손에 쥐고, 천천히 산책하듯 작품을 마주해 보세요. 은은하게 퍼지는 숲의 향기를 맡으며 작품 사이를 산책하는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오롯이 나만의 ‘숨’을 회복하는 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임시풍경 0108
oil on canvas,
100×72.7cm, 2022



임시풍경 0110
oil on canvas, 100×72.7cm, 2022

당신에게 건네는 위로

척박한 돌무더기 위에서도 서로를 붙잡아주며 거대한 초록을 이루어낸 꽃자왈처럼, 이번 전시가 치열한 일상을 지내온 우리에게 다정한 위안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무거운 걸음을 잠시 멈추고, 숲이 건네는 깊은 숨을 가득 채워가시길. 그리하여 다시 일상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당신의 마음속에 꽃자왈의 싱그러운 숨결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별뉘 0312

oil on canvas, 2,363.4×227.3cm(each 181.8×227.3cm×13ea), 2024

곶자왈이란

곶자왈은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압
괴 위에 형성된 독특한 숲이자 생태계입니다. 수백 년의 세
월을 거쳐 형성된 이 숲은 보전 가치가 높은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며, 공기를 맑게 정화하는 ‘제주 환경의 허파’입니다.
더불어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데도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암 숲 곶자왈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5%인 95km² 규모
로, 해안지대와 한라산을 연결하는 제주 생태계의 중심 축
이자 핵심 환경 자산입니다.

특히 제주고사리삼, 개가시나무,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수
많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자생하는 생명의 안식처이기도 합
니다. 그 독특한 지질 자원과 풍부한 생물다양성, 그리고 고
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세계자연
보전총회(WCC)에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세계
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곶자왈 면적의 무려 30%가 개발로 인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곶자왈의 약 60%가 사
유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훼손도 시간문제인 만큼,
보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곶자왈공유화운동

곶자왈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누리고 보전·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시민운동입니다. 제주의 자연을 사랑
하는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금 모금과 토지 기
증 등을 통해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한 뒤 이를 공유화함으
로써,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실천 행
동입니다.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곶자왈을 모든 이들의 공동자산으
로 보전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으로 출발한 재단은 기금 모금을 통한 사유지
곶자왈 매입으로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
다. 후원받은 기금은 전액 사유지 곶자왈 매입에만 사용됩
니다. 이외에도 곶자왈 교육, 연구, 곶자왈생태체험관 운영
등 곶자왈의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전

- 2026 《늑대와 개의 시간》 Boa 갤러리, 파리 (프랑스)
《늑대와 개의 시간》 ArtsKoco 갤러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연결의 존재들》 나빌레라 문화재단, 나주 (한국)
《야생의 위로》 작은 미술관, 나주 (한국)
- 2025 《여전히 숨은 말하고 있다》 아천미술관, 영암 (한국)
- 2023 《홍일화의 넘나들이》 아미미술관, 당진 (한국)
《Garden, Hongilhwa x D'strict》 아르떼 뮤지엄, 제주 (한국)
《Color Of Thorns》 Niche 갤러리, 도쿄 (일본)
《The Forest》 피움미술관, 고성 (한국)
- 2022 《Epine》 ArtsKoco 갤러리, (룩셈부르크)
《Our Nature》 에스빠스 이카르,
이씨 레 물리노 (프랑스)
- 2020 《Human & Nature》 쉼박물관, 서울 (한국)

주요 그룹전

- 2026 《Echos de l'Abime》 베르사유 미술대학교, 베르사유 (프랑스)
《Interlace II》 닥시나시트라 박물관,
타밀 나두 (인도)
- 2025 《Au-Dela du Visible》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 2024 《Humanity & Nature》 유네스코, 파리(프랑스)
《Flex Modern》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한국)
《Voyage au pays du matin calme》 Cercle Munster, (룩셈부르크)
- 2023 《Rhapsody in Green》 아미미술관, 당진 (한국)
- 2022 《룩셈부르크 아트워크》 Fouerplaatz, (룩셈부르크)
《금강자연비엔날레》 연미산자연미술관, 공주 (한국)
-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홍천미술관, 홍천 (한국)
《Women's March》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한국)

저서

빛이 숨을 쉴 때

아트 레지던시

- 2022 아티스트레지던시와산, 제주
- 2021 피움레지던시. 고성, 아트팩토리 NJF. 파주
- 2020 아티스트레지던시와산, 제주
- 2019 제주조각공원. 서귀포

TV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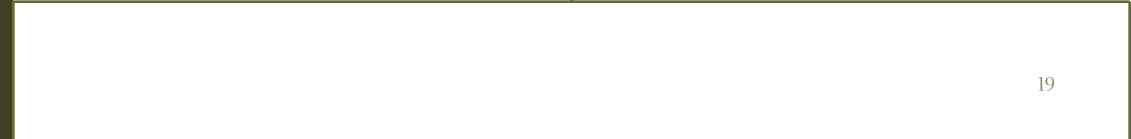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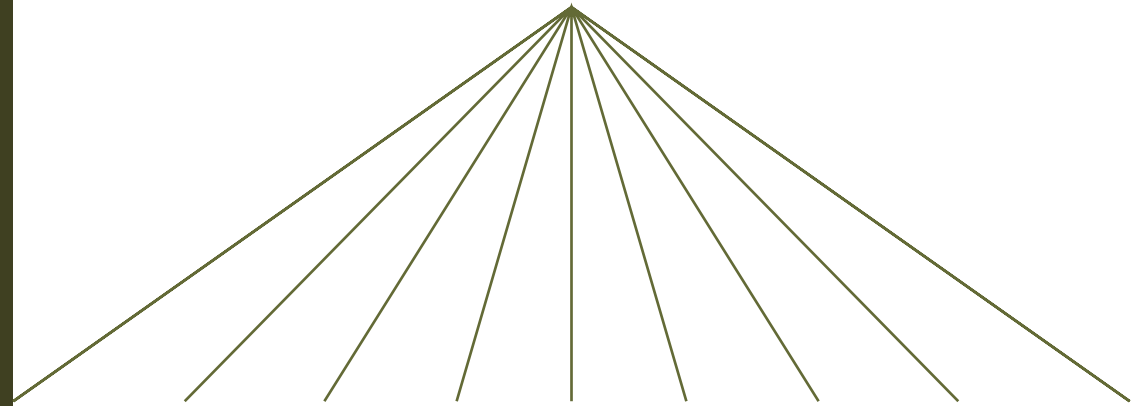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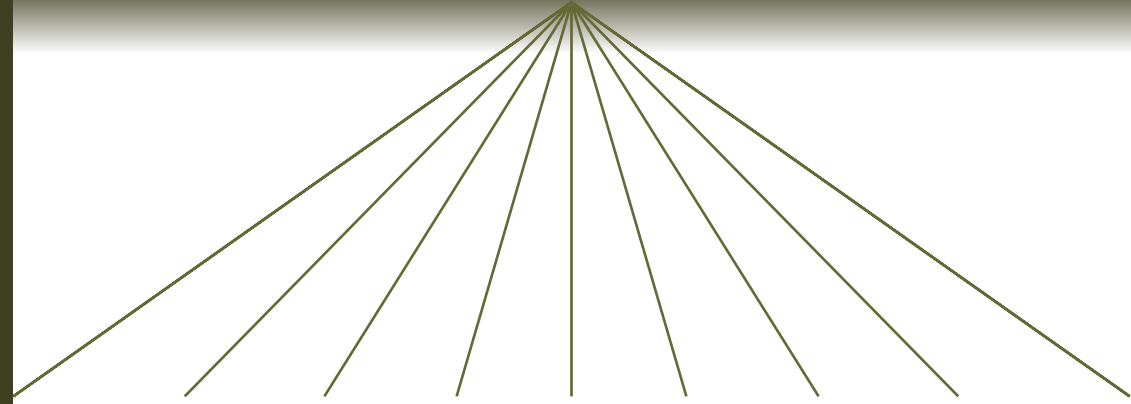
- 2024 세계테마기행 - 찬란하게 아름답다
1부 훔날리는 금빛, 사하라 사막
2부 튀니지안 블루로드
3부 천년보다 붉은 열정
4부 시간을 거슬러, 역사 기행
- 2017 KBS 1TV 미래기획 2030 세상을 바꾸는 건축
- 2014 EBS 미술기행
1부 지상낙원을 꿈꾸다 - 폴 고갱
2부 빛을 탐하다. - 모네와 르누아르
3부 살바도르 달리 - 상상을 현실로 바꾸다
4부 천재, 비밀을 남기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 2013 문예특집 EBS 서양미술기행
1부 파리의 밤을 채색하다 - 톨루즈 로트렉
5부 죽음의 미스터리, 그 비밀의 길을 따라가다 - 반 고흐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 2018 다큐멘터리 영화 《샤먼로드》
- 2017 영화 《리얼》
KCC & Hongilhwa 서울대공원 벽화 제작
에어린 향수 광고시안

작품소장

반 고흐 미술재단(암스테르담), 프랑스국립도서관(파리),
The Rogers Fondation (싱가포르),
Spector Fondation(일본), FF Cruz & Co (필리핀), 시노트렌스(중국),
국립관화미술관(포르투갈) ... etc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The Gotjawal Trust of Jeju

제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교래자연휴양림 내
064.783.6047

홈페이지 jejustrust.net
이메일 gotjawal@jejustrust.net
인스타그램 [jejustrust](https://www.instagram.com/jejustrust)

전시기간
2026년 7월 6일(월)~7월 31일(금)
*전시 기간 중 주말은 운영하지 않음

전시장소
라이나타워 1층(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관람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모바일 브로슈어



온라인 전시

